

#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본격화

## 후보자 5명 출마... 내달 5일 소견 발표 마지막으로 모든 선거운동 마무리

통합체육회의 초대 수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

체육회 통합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장정수(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 이기홍(61)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 등 5명의 후보가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후보 등록 하루 뒤인 24일부터 각자 선거사무소를 연 뒤 1405명의 선거인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마다의 이력과 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번 선거에 뛰어든 장정수 후보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직접 경험하고, 스포츠의교와 체육행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마케팅 마인드로 한국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소통과 혁신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힌 장 후보는 대한체육회의 화학적 통합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각계각층의 체육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소통·상생위

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체육단체의 이원화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도 제거해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일한 여성 출마자인 이에리사 후보는 가장 인지도가 높다. 1973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이끌어 국민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이후 지도자를 거쳐 체육 행정

가, 체육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평생을 체육계에 몸담았다. 제39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김정행 현 회장에 어렵게 패한 그는 다시 한 번 한국 체육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도전장을 던졌다.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체육이 있는 삶 실현, 체육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3가지 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기홍 후보는 체육인 출신은 아니지만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교문을 시작으로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 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내며 체육계와 연을 이었다.

2010 광주 아시안게임과 2012 런던

올림픽 등 2차례 선수단장을 지내며 엘리트 체육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는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정자립을 통한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 조정을 통해 재정자립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호성 후보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힘써 왔다. 체육계는 물론 정계에도 발이 넓어 친정부적 성향의 후보로 꼽힌다.

2008년부터 단국대 15~17대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호성 총장은 현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BS) 부위원장,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 부회장, 한국대학스포츠총연합회(KUSF) 회장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 후보의 이번 선거 모토는 '함께 가지! 대한체육 100년이다.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이 하나 되는 통합 대한체육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에게 자랑스럽고 국민에게 행

복을 줄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번호를 부여받은 전병관 후보는 50년 체육인의 길을 걸어온 것을 감점으로 내세웠다.

유도 선수로 시작해 대학 교수를 거쳐 한국체육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총감독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두루 경험한 전문 체육인이다.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직전까지 부회장을 지냈다.

전 후보는 '비행기는 조종사에게, 배는 선장에게, 체육회는 체육인에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통합체육회의 '갈길(독립성)'과 '살길(재정 확충)'을 만들어 체육인들의 '자율과 고용 안정'을 이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0월5일 후보자 소견 발표를 마지막으로 모든 선거운동은 마무리된다. 소견 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도 이어진다.

5명의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다수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된다. 임기는 2020년까지다.

/김민근 기자



우석대선수단, 전국체전 결단식 갖고 선전 다짐

우석대학교는 27일 제97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우석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종목이 전국체전 참가해 주변 대학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우석대학교가 출전하는 종목과 선수는 배구 11명, 축구 18명, 태권도 4명, 사격 9명, 양궁 5명, 펜싱 4명, 농구 12명, 덴스포츠 2명 등으로 전종을 대표해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권 우석대 총장은 결단식에서 임원진과 선수단에 특별 격려금을 전달하며 "전북과 우석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며 "스포츠맨십을 토대로 좋은 경기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연세대 고려대 꺾고 대학농구 리그 첫 우승

연세대가 2010년 출범한 대학농구리그에서 처음으로 정상

을 밟았다. 연세대는 29일 서대문구 연세대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6 대학농구리그 챔피언결정전(3전2선승제) 2차전에서 4학년 가드 천기범의 활약을 앞세워 84-72로 승리, 2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과 지난해 결승에 올랐지만 연거푸 고려대에 무릎을 꿇었던 연세대는 세 번째 도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다음 달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앞둔 가드 천기범은 3점슛 3개 포함 23점을 올리며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승부처였던 3쿼터에 정확한 외곽포로 고려대를 흔들었다. 2014년 8월에 부임한 은희석 연세대 감독은 올 3월 MBC 대회에서 11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데 이어 첫 대학농구리그 우승까지 이끌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김민근 기자

##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입장권 오늘부터 예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입장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로 치러지는 3개 대회의 입장권 온라인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예매가 실시되는 대회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치러지는 26개의 테스트이벤트 중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와 2017 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2016~2017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빅에어 종목 월드컵 대회다.

국가·독립유공자와 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 경로자, 18세 이하 청소년, 개회도시 주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 예매는 테스트이벤트대회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 전북현대, 내달 2일 상주상무와 격돌... 리그 33경기 연속 무패행진 도전

## 시즌 종료까지 6경기 최초 무패우승에 팬들 관심 집중

K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전북 현대모터스축구단이 내달 2일 상주상무를 상대로 리그 33경기 연속무패에 도전한다.

전북은 이번 경기가 상주에서 열리는 원정경기이긴 하지만 주중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FC서울을 4대1로 완파하며 최상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 손쉬운 승리가 예견되고 있다.

상대팀인 상주 상무는 리그 초반 이용, 임상철, 박기동, 이승기 등 병장들의 투혼을 앞세워 연전연승을 거듭했으나 이들이 지난달 25일 전북 전역을 함과 동시에 부진에 빠졌다.

상주는 전역식이 있던 8월 25일 이후로 수원, 광주, 인천, 전남을 연달아 상대했지만 2무 2패에 그쳤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제주전에서는 1대5로 완파당할 바 있다.

현재 6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시 상위 6팀이 진출하는 상위 스플릿 탈락이 유력하다.

전북은 지난 28일 서울전에 출전한 김신욱, 이재성, 최철순, 레오나르도, 로페즈 선수에게 휴식을 줄 것이 유력하다.

레오나르도 대신 지난달 상주에서 갖 전역한 이승기가 날개로 출전해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격수로는 최근 부진에 빠진 에두를 선발출장 시켜 득점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시즌 중반 중요한 득점을 연달아 터트린 이종호 역시 충분한 체력이 비축돼 있어 경기감각 유지를 위해 에두와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선수들이 레오나르도와 이재성, 이동국 등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 로페즈, 김신욱, 이종호, 김보경 등 이적생들이 시기는 다르지만 전선수가



지난달 상주에서 갖 전역한 이승기가 오는 10월 2일 상주상무전 날개로 출전해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이며 K리그의 33년 역사 중 가장 파괴적이고 완벽한 팀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고작 6경기만을 남겨둔

가운데 전북이 상주를 재물로 리그 역사상 최초 무패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